

30년 뒤, 두 집 중 한 집 '고령 가구주'

65세 이상 가구주 467만→1137만...2.5배 ↑
전체 가구주 중 고령 비중 22.4%→49.8%

인구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의 30년 뒤 가구 구성을 보면 2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 탓인데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 수도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수는 1137만5000가구다.

이는 2020년(464만가구)보다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2.4%에서 49.8%까지 상승해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셈이다.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161만8000가

구(34.9%)에서 2050년 467만1000가구(41.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도 2020년 161만 가구(34.7%)에서 2050년 395만8000가구(34.8%)로 30년 간 2.5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 주 비중도 2020년 25.0%에서 2050년에는 절반이 넘는 51.6%로 467만 가구까지 치솟는다.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8%로 가장 높지만 2050년에는 70대가 18.4%로 최대가 된다.

고령화 추세로 가구주 중위연령도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3세나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에는 남녀 가구주 모두 50대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는 남자 가구주는 70대가 12.5%로 가장 많고, 여자 가구주는 80세 이상이 8.8%로 가장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가구 변화에 있어 미혼 가구나 1인 가구의 변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고, 인구 고령화 속도도 기대여명이 늘면서 더 빨라졌다"며 "전반적으로 고령인구 변화에 의해서 모든 가구가 고령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중은 한국 22.4%, 영국 29.1%, 일본 38.2%로 한국이 가장 낮지만 2050년에는 한국 43.1%, 영국 36.2%, 일본 44.2%로 한국이 영국을 추월해 일본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50년까지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有配偶) 가구주는 2020년 대비 15.4%포인트(p) 줄어드는 반면, 결혼하지 않은 가구주는 10.0%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유배우 60.7%(1258만 가구), 미혼 16.9%(407만 가구), 사별 11.3%(210만 가구), 이혼 9.4%(198만 가구) 순이다.

2050년에는 유배우 45.3%(1034만 5000가구), 미혼 29.6%(676만 가구), 이혼 14.0%(320만6000가구), 사별 11.1%(253만9000가구) 순으로 바뀐다. 유배우는 7.4%p 줄고, 미혼은 9.0%p 늘어난다.

가구별 가구원수에 있어서도 1~2인 가구 비중은 갈수록 늘어 2020년 59.2%에서 2050년 75.8%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까지 1인·2인 가구는 연평균 각각 8만6000가구, 8만3000가구씩 증가하면서 4가구 중 3가구는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공공요금·인건비 ↑...자영업 '3중고'

식용유 가격·전기·가스요금 인상 자영업자들 한숨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엔데믹(종료병화) 시대를 맞아 매출 회복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근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더 좋지않다는 목소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용유·밀가루 등 식자재 인상은 이미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공공요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또 한번 인상될 조짐이다. 재료비에 고정비, 인건비 등 '3중고'에 짓눌리는 상황이다.

◆업소용 식용유값 줄인상...오뚜기 20% 가격 인상

일반음식점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18ℓ 식용유는 특히 가격 상승세가 무섭다. 사조대립 해표식용유, 롯데푸드 콩식용유와 C제일제당 백설콩기름, 오뚜기 식용유는 지난해 최저가가 4만원대였지만 현재는 7만원 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다.

28일 기준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사조대립의 해표 식용유 18ℓ 1개의 온라인 최저가는 현재 8만9500원이다. 지난해 온라인 최저가 6만3590원에 비하면 27.2% 뛰었다. 5만원대이던 석달 전에 대비 47%, 4만원대 중반이던 1년 전과 비교하면 77% 가격이 급등했다.

업체들은 대두 및 대두유 시세가 워낙 급등한 데다 환율 급등으로 제반 비용이 상승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엔 오뚜기가 지난 20일부로 업소용 식용유 가격을 20% 인

상했고, 이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조, 롯데푸드, C제일제당 백설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 다' 등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소셜네트워크(SNS)에는 "돈가스 가게 하는데 식용유값 너무 무섭다. 업종을 바꾸고 싶다", "모든 식자재 가격이 오르지만 식용유는 받을 때마다 족족 오른다", "2만원대하던 식용유가 앞으로 10만원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는 등 식용유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글이 잇따른다.

▲전기세·가스요금 인상에 자영업자 부담 늘어날 듯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소식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등 고정비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에서 5원으로 인상을하기로 했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도 kWh당 5원 오른다.

가스 요금도 내달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MJ) 1.11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 요금은 16.99원(7.0%)으로 음식점·구내식당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16.60원(7.2%)으로 각각 오른다.

'캐스퍼 커스터마이징' 상품 출시

'여행·반려동물' 맞춤...아웃도어 지원 테마별 제품



현대자동차는 SUV 캐스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캐스퍼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박(차에서 캠핑), 카크닉 등 즐거운 아웃도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테마별 제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캐스퍼 출시 시에 맞춰 론칭했던 캠핑·차박 테마 상품 '여행의 정석'에 이어 이날 '여행의 정석'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여행의 정석 상품은 캐스퍼와 함께 새롭고 알찬 레저를 경험할 수 있는 보병백 및 피크닉 매트, 등승석 시트백 보드 트레이에 연결 가능한 등승석 시트백 보드 테이블, 사이드 어닝과 크로스바 등으로 구성됐다. 캐스퍼는 1, 2열이 모두 앞으로 접히는 폴 폴딩 시트를 적용해

높은 공간 활용성을 자랑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여행의 정석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캐스퍼 내 고객 중 대형견을 기르는 펫팬족의 슬기로운 카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한 펫 프렌들리 상품도 출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중·소형견 펫팬족을 위한 테마 상품 펫 프렌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출시한 캐스퍼 밴에 특화된 펫 프렌들리 테마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펫 프렌들리 상품은 캐스퍼 밴 고객에게 반려견과 함께 힐링 편리하고 안전한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견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반려견 사다리, 주행 중 안전한 차량 거주를 보조할 넉넉한 사이즈의 쉐넬, 청결한 차량 관리를 지원하는 파티션 보드 방오 커버, 2열 방오 매트 구성됐다.

광양만권경제특구

메타버스 활용 외국인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2 PINVEST DAY' 투자상담 설명회에 참여해 광양경제특구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KOTRA에서 주관하는 핀베스트 데이(PINVEST DAY)는 'Pinpoint'와 'Invest'의 합성어인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설명회로 메타버스 시대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열렸다.

광양만권경제특구는 지난 23일 설명회에서 외투자기업 A사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조건, 인센티브 및 조세감면제도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외투자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정보는 물론 광양만권 횡단 배후부지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 등을 설명했다.

광양만권경제특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에 맞게 외투자기업이 최적의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 상담을 진행했다"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맞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외투자기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주꾸미 35만 마리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종자 35만 마리를 여수, 고흥,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7개 시군 앞 바다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는 일을 품은 어미를 자원조성연구소 인공산란장에서 사육관리 하면서 산란을 유도하고, 종자 부화 후, 방류질병검사까지 마친 건강한 우량종자다.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주 산란기는 3~6월로, 수심 5~50m층에서 서식하면서 패류, 갑각류 등을 먹는 나치, 갑오징어, 문어와 같은 대표적 두족류다. 최근 낚시 유어선의 증가에 따른 남획으로 자원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생물 1kg당 3만~3만 5천 원에 판매되는데 봄철 대표적 어업인 고소득 품종이다.

박준택 원장은 "2013년부터 9년간 방류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종자 방류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컵밥, 16년만에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재료비가 오르면서 컵밥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난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랑진 컵밥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컵밥을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서울회생법원 28일 최종 인수예정자 허가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의 신청을 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 선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KG그룹의 KG컨소시엄은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회생법원은 "후속 공개입찰 과정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대금의 규모,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

의 재무건전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매각은 스톡홀름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스톡홀름 방식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KG그룹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정했다.

인수 대금 규모와 인수 이후 운영 자금 확보계획,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G컨소시엄은 약 3500억원의 쌍방울그룹은 약 38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쉐넬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3000억원을 더 높게 써 넣음에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쌍방울그룹도 계열사 광림을 통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인수예정자가 KG그룹 컨소시엄으로 지정되면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광주첨단과학산단 관제센터 방역 'KT AI 로봇'이 맡는다

AI 방역로봇,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 살균으로 인체 무해

KT AI 방역로봇이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광주첨단과학산단 단지 통합 관제센터를 안전하게 지키는다.

KT 전남남북광역본부는 최신 방역기술과 AI 로봇을 결합한 'KT AI 방역로봇'을 광주첨단과학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이노비즈센터가 함께 입주한 통합관제센터에 본격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T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 첨단과학산단 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인프

라를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로 개선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출·퇴근 등 생활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 시설인 통합관제센터에 도입한 KT AI 방역로봇은 라이다(Lidar)와 카메라 센서 기반의 안전한 자율 주행과 자동충전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며 방역을 한다.

소독액 분사 방식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의 방역을 통해 유해 바이러스를 99.9% 이상 살균한다. 하단에 탑재된 UVC



KT AI 방역로봇이 광주첨단산단 단지 통합관제센터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LED(자외선 발광다이오드)를 통해서 비말 등으로 바닥에 낙하된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방역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생활 유해가스 등에 대한 공기 청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빛가람 에너지밸리 SW 경진대회' 작품 공모

한전KDN이 광주·전남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도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한전KDN은 올해 8회째를 맞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작품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회 참가자격은 광주·전남지역 일반·특수·전문대학·대학원과 마이스터고에 재(휴)학중인 학생들로 개인과 최대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수행한 캡스톤 디자인을 포



함해 모든 분야의 소프트웨어 작품이면 공모 가능하며 9월 6일~28일 까지 한전KDN 누리집(http://www.kdn.com/kdncontest)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기호 기자